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예수님 부활**을 모든 교우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모든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 **사순 애공함**을 오늘 미사 전후에 성당입구에 있는 수집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견진 교리 수강 신청 안내**
 - 수강신청기간: 4월 12일까지
 - 담당자: 최영자 레지나, 이호근 라파엘
 - 준비서류: 견진신청서, 세례증명서
 - 교리: 4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3-5시
 - 견진성사: 5월 24일 주일 미사 (주교님 집전)
 - 첫모임이 오늘 미사 후 성당에서 있습니다.
-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콜럼버스 교구 프레드릭 주교님을 위한 기도**
 주교님께서 지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이십니다. 하느님의 참된 목자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주교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 ◆ **구역별 가정 면담 및 학생 면담**
 - 일시: 주일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내 신부님 집무실
 - 면담순서: 황석두 구역, 이호영 구역
 - 지참물: 교적, 교무금 약정서, 신앙현황서
- ◆ **이호영 구역모임**
 - 일시: 4월 18일(토) 저녁 7시
 - 장소: 최레지나 자매님 맥 (614-855-2167)
6834 Walnut St. New Albany, OH 43054
- ◆ **친교 준비 봉사자**
 - 4월 12일: 성모회 4월 19일: 박귀영
- ◆ **4월 친교 후 정리 봉사:** 정하상 구역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71.00
교 무 금	\$1,655.00
감 사 헌 금	\$200.00

- **교 무 금:** 조주현 최준표 정동완 최규선 이호근
서경환 박석현 김명호 박귀영 김도균
윤형석
- **감사헌금:** 김성용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예수 부활 대축일 April 12, 2009



<부활하신 예수님>
 변진의 (1941-), 유화, 송현성당,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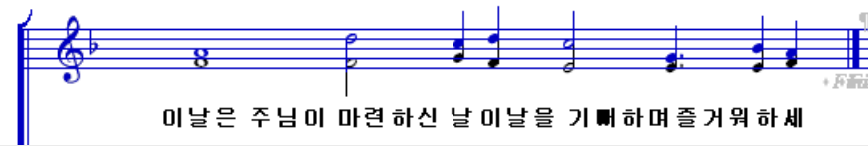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사도행전 10,34-37-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화답송



제 2 독서 콜로새서 3,1-4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우리의 파스카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033단 32명
이호영	350단 3명	18,599단 120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350단 3명	2/22/04 - 4/5/09 (268주)

☞ 총누계: 212,332단 12,753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4월12일	4월19일
해설자	고상식	안유신
독서/봉헌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135 ♪ 봉헌: 211
♪ 성체: 159 165 ♪ 파견: 134

보고 믿었다

구요비 음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이제는 고인이 된 친지들이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 뇌리와 추억에서 잊혀지기보다 더 생생하게 떠오르고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단지 나의 기억력이 비상하기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이분들이 계속 존재하며 살아 계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는 예감이 들곤 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신약성경의 가장 오래된 진술인 코린토 전서 15장을 읽다보면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은 이들의 부활을 먼저 전제한다(13절, 15절, 16절):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희랍의 현자들이 간파한 ‘영혼의 불멸성’이나 불교의 가르침인 ‘환생(re-incarnatio)’이 죽음 저 너머의 지속적인 생명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영원과 희망을 표현하며, 또 이를 나름대로 통찰하는 것은 아닐까? 이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주님 부활에 대한 전이해(前理解)라고도 하겠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본 ‘빈 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죽음은 결정적이지 못하다. 하느님의 아들로써 지니신 신성(神性)으로 그분은 바로 하느님의 생명(生命)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는 생명만이 있기에 죽음은 결코 하느님에게 속하지 않는다. 죽음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인간성(人性)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성(神性)을 확인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어 육신이 영혼과 분리된 뒤에도 육신은 항상 신성과 결합되어 있었다.

“인간의 이 두 구성체인 영혼과 육신 안에 남아 있는 신성(神性)의 단일성으로 이 둘은 다시 결합됩니다. 이처럼 두 구성체의 결합이 분리됨으로써 죽음이 오고 분리된 이 둘의 결합으로 부활이 일어납니다”(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한편, 빈 무덤 안에서 천사들은 한결같이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되살아나셨다’(마태 28,6; 루카 24,7; 마르16,7)고 전한다. 주님의 부활은 하느님의 약속의 실현이다(요한 20,9). 하느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계약에 충실하시며 당신의 언약이 담긴 말씀에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 하느님의 약속은 인간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말하며 이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와 죽음보다도 더 강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뵈는 길은 오늘 복음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예수님에게 걸었던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내린 ‘어둔 밤’ 가운데서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주님과 관계와 사랑에 충실할 때이다.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그대는 죽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것이다(가브리엘 마르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처지에서도 ‘인생은 아름다워라!’라는 생의 긍정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또한 인간이 이룩하는 역사의 뒀안길에서 겪는 암울한 부조리와 모순 가운데서도 이 역사를 긍정하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실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